전북금연지원센터
금연상담전화 | 1833-9030
전라북도 익산시 무왕로 895(신용동 344-2) 원광대학교병원 외래1관 1층
TEL | 063) 859-2400 ~ 2410 FAX | 063) 859-2414


# 전주매일

www.jjmaeil.com

2019년 5월 14일 화요일 (음 4월 10일) 제2288호 대표전화 (063)288-9700


비수술적 척추관절 통증치료 전문
세인 신경외과 의원
원장 곽 경 문 ☎(063)220-6600
전주시 완산구 효자 천변 2길 6번지

# 특례시 지정 범국민 서명 70만명

## 전주시 "당초 목표치보다 2배 이상 초과 달성" 밝혀
## 시민·도민 열망 확인
## 국회 법안 상정시까지 서명운동 지속 전개

13일 전북 전주시 전주시청 브리핑룸에서 김양원 전주시 부시장과 관계자들이 전주특례시 지정 범시민 서명운동에 관한 결과 발표 기자회견을 갖고 기자들의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전주 특례시 지정을 촉구하는 범국민 서명운동 참여인원이 당초 목표치보다 2배 이상 많은 70만여 명으로 집계됐다.

김양원 전주부시장과 김한철 전주시통장연합회장, 임정용 전주시주민자치협의회장, 황의옥 사단법인 전주시자원봉사센터 이사장, 최 유 사단법인 전주시자원봉사연합회장, 임규철 직능경제인단체 총연합회장, 전안균 전주시소상공인연합회장은 13일 시청 브리핑룸에서 지난 1개월 동안 진행된 전주 특례시 지정 범국민 서명운동 관련 기자회견을 열었다.

이날, 전주시는 지난 4월 4일부터 5월 3일까지 진행된 전주 특례시 지정 범국민 서명운동 참여인원이 총 70만 3092명으로 집계됐다고 밝혔다.

이는 지난달 4일 시민 2000여명이 참석한 서명운동 출정식을 시작으로 통장협의회와 주민자치위원회, 전주지역자원봉사단체 등이 주축이 돼 활발한 활동을 펼쳐온 결과로, 시가 당초 목표했던 30만 명을 2.34배 이상 초과 달성한 것이다.

특히, 경제인단체와 봉사단체 등 도내 기관·단체들이 앞장서 전주시를 제외한 나머지 도내 13개 시·군의 서명운동을 이끌어내면서 도민 16만2000여명이 서명운동에 동참해 전주 특례시 지정이 전주만을 위한 것이 아닌 전북발전을 위해 꼭 필요하다는 공감대가 확산됐다.

여기에, 전주한옥마을 여행객과 전주동물원 관람객, 전주국제영화제 관람객 등 전주를 찾은 여행객들도 약 1만명이 서명운동에 동참하면서 전주 특례시 지정을 응원했다.

시는 전주 특례시 지정 불씨를 더욱 키우기 위해 특례시 지정 국회 상임위 법률안 상정 시까지 온라인 서명과 시청과 완산·덕진구청, 35개 동 주민센터 등 총 39개 서명대를 활용한 서명운동을 지속 전개하기로 했다.

시는 향후 시민과 도민들의 전주 특례시 지정 열망이 한마음 한뜻으로 담긴 서명부를 국회와 행정안전부 등 정부부처에 전달해 전주 특례시가 포함된 법률안이 최종 입법될 수 있도록 강력히 건의할 계획이다.

김양원 전주시 부시장은 "1개월 간 서명운동에 70만 명 이상이 참여하면서 전주 특례시 지정에 대한 시민들의 염원이 얼마만큼 큰지 확인할 수 있었다"며, "이 목소리를 국회와 정부에 고스란히 전달해 전주 특례시라는 후손들을 위한 튼튼한 집이 완성될 수 있도록 온 힘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송효철 기자

## 社 告

장애인의 날 기념을 위한

### 제13회 전국 장애인 가요제

일시: 2019년 5월 19일 (일) 본선 오후 2시 30분
(예선 오전 10시)
장소: 전주 풍남문 광장(풍남문 옆)

장애인의 문화예술 참여 확대와 장애인의 풍요로운 삶을 위하고 장애인의 용기와 자신감을 심어주기 위해 전국 장애인 가요제를 개최하오니 많은 참여 바랍니다.

▲ 주최: 전북장애인복지문제연구소, 전주매일신문사
▲ 주관: 전북장애인복지문제연구소 전주시지소, 전주시 장애인 복지협회
▲ 후원 및 협찬: 전북도, (사)한국문화예술진흥회 전북본부, (사)한국연예예술인협회 전북지회, 호남향토음악발전협의회, 노사모, 전북장애인신문사, JJC 지방자치TV 전북방송(녹화방송) 등
▲ 참가자격: 만 16세 이상 장애인(단, 전국대회 대상 1등 수상자 제외)
▲ 접수기간: 2019년 5월 14일 오후 6시까지
▲ 접수처: 전주시 덕진구 건산로 1번지(5층). 063-231-6669
전주시 완산구 관선3길 21-15(2층). 063-286-6678
FAX: 063-287-6676, E-mail: yangokkim@hanmail.net

## '함께뛰는 땀방울, 자신감의 꽃망울' 전국장애학생체전 오늘 '팡파르'

### 17일까지 나흘간… 익산종합운동장 등 6개시군 경기장에서 열려
### 16개 종목에 3600여명 선수 참여해 기존 대회대비 최대 규모로
### 전북선수단, 육상·수영·배드민턴 등 13개 종목 174명이 출전

지난달에 열린 전국장애학생체전 성공기원 기념행사.

'함께뛰는 땀방울, 자신감의 꽃망울'을 슬로건으로 내건 제13회 전국장애학생체육대회가 주 개최지인 익산을 비롯한 전라북도 일원에서 개최된다.

전국장애학생체육대회는 14~17일 4일간 익산종합경기장 등 6개 시·군 16개 경기장에서 초등학교부, 중학교부, 고등학교부로 나누어 개최되며, 16개 종목에 3,600여명의 선수들이 참여한다. 그간 개최되었던 대회에 대비 최대규모로 개최된다.

개회식은 오후 3시 30분부터 익산실내체육관에서 '전북의 전통과 현재, 그리고 미래를 아우르는 '꿈의 걸음'을 걸어갑니다.'라는 주제로 열린다.

송하진 전북도지사는 "이번 체전을 전북을 알리는 계기로 삼고 문화·예술·관광이 어우러지는 전북관광 체험 1번지로 만들고자 하며, 우리도를 방문하는 선수단 및 방문객에게 안전하고 깨끗한 전북이미지를 보여주자고 당부했다. 특히 '성공체전의 관건은 우리 도민들의 관심이라고 설명하고 14일부터 열리는 제13회 전국장애학생체전 개회식과 체전 경기에 많은 관심을 가져주실 것을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한편, 이번 장애학생체육대회에서 전북 선수단은 김승환 교육감을 단장으로 174명의 역대 최대 선수단이 출전해 그동안 갈고 닦은 기량을 발휘하게 된다.

전북 선수단은 13개 종목(육상, 수영, 탁구, 배드민턴, 보치아, 농구, 배구, 골볼, 실내조정, 디스크골프, e스포츠, 플로어볼, 슐런)에 출전한다. /장은성 기자

## 고창군 '무장읍성축제' 오늘 개최

고창군과 ㈜무장읍성보존회(위원장 김기육)는 14일 역사와 문화의 산실인 고창 무장현 관아와 읍성에서 '제1회 무장읍성 축제'를 개최한다고 13일 밝혔다.

이번 축제는 ㈜무장읍성보존회 주관으로 '무장읍성 축성 602주년, 1417년 조선시대 과거로'를 주제로 무장면 일원에서 진행된다.

고창 무장현 관아와 읍성은 2001년 토지매입을 시작으로 현재 발굴조사와 복원사업을 병행해 문화재 복원 작업이 추진되고 있다.

특히, 지난해 고창 무장현 관아와 읍성에서 출토된 비격진천뢰는 문화유산 보존·관리의 중요한 성과로 평가된다. 거의 온전한 형태로 출토된 11점의 비격진천뢰는 학계의 관심을 받고 있다.

이번 축제에서는 현감부임행차, 비격진천뢰 발굴 및 복원현장 공개, 조선시대 병영문화체험, 소원지쓰기, 전통외줄타기공연, 전통택견공연, 신나는 예술버스 공연, 연예인 초청공연 등이 진행될 예정이다. /고창=김영식 기자